

걷기여행부터 자동차·철도까지…

목포시 교통 디자인 나섰다

목포시가 걷기 좋고, 운전·주차하기 편하고, 양레가 원활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도보관광 여건 조성부터 자동차, 기차 등을 위한 인프라까지 교통 전반을 디자인하고 있다.

먼저 도보관광은 지난해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된 것이 기폭제가 돼 추진되고 있다. 대표 사업은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이다.

시는 관광거점 도시 선정 이전부터 해변맛길사업을 추진해왔고, 관광거점 도시 사업과 접목해 추진하고 있다.

해변맛길은 평화광장에서 갯바위를 거쳐 삼학도를 지나 목포해양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1.7km를 산책로, 데크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바닷가 미술관 길을 비롯해 환경생태길, 가족나들이길, 개항역사길, 젊은 연인의 길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특색있는 길을 조성한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는 수협에서부터 해양대 구간을 연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의 보행·가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봇대를 뺄고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으로 묻는 사업을 펴고 있다.

만호동, 유달동을 관통하는 원도심 변화로를 중심으로 한 2.15km 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평화광장에서도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다.

보행자와 차량의 혼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평화광장의 해변차로 일부를 없애고 인도와 녹지공간을 재조정하는 이 사업을 다음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친환경이동수단인 자전거와 관련된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옛 황포돛배매표소에 연면적 125㎡의 2층 규모의 자전거 터미널을 조성했다.

2019년 공모에 선정된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비, 휴식, 보관 등



목포시는 평화광장에서 목포해양대에 이르는 '해변맛길 30리'를 5개 구간으로 나눠 특색있게 조성한다. <목포시 제공>

해변맛길 30리 조성·평화광장 리모델링 등 도보관광 개선 도로 정비…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기능 개선 용역도 추진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터미널을 지난 3월 개장했다.

자전거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우선 도로의 표층이 노후해 골재가 분리되거나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을 정비 중이다.

28개 노선 15km 구간 중 올해 5월까지 3호광장~이로시장 입구 등 8개 노선 4.9km 구간의 노후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재포장했다.

세라믹산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공생재활원에서부터 연산119안전센터 구간 244m를 폭 20m 도로로 연결하는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한다. 현재는 124m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120m 구간도 착공할 예정이다.

익산국도관리청의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국가기관의 사업도 진행 중이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구상을 위한 용역'도 하고 있다.

목포역은 1913년 개통한 이후 1979년 7월 신축된 뒤 2004년 4월 KTX 운행으로 증축됐다.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낡고 비좁아 구조적으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과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철도시설 재배치, 역사 신축, 시민의 숲 광장 조성 등 목포역 부지 전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진도군, 외국인 한시 계절근로자 도입

법무부서 35명 배정 받아…최대 5개월 농촌 등 투입

진도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지난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의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 제도에 따라 35명을 배정받았다.

한시적 계절근로자는 국내 체류 중이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출국·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군은 최근 농가 신청을 접수 받아 35명을 법무부에 신청해 전원 배정 받았으며,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하다.

한시적 계절 근로자는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14일간 격리조치 이후 농가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산업재해보험도 적용받는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영농 대행 서비스, 농기계 무상 임대 등 농촌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신안군 '하남시의 섬 도초도' 조형물 제막

신안군은 도초도를 하남시 섬으로 선포하고 상징 조형물도 제막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남시의 섬 도초도 표지석은 도초도 수국공원 관문에 세워져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하남시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 하남시는 2019년 9월 신안군과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자매결연을 했다.

신안군의 명예섬 공유 정책에 따라 도초도를 하남시 섬으로 공유했다.

명예섬 공유 정책은 섬이 없는 자치단체에 신안군의 섬 중 하나를 부여하고 섬을 찾아오는 경우 교통비와 관광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하남시는 나의 제2의 고향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지난 28일 도초도 수국공원에서 하남시의 섬 도초도 선포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으로 하남시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감사하며 남시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축협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영광축협이 최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0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평가'는 전국에 1118개의 농·축협을 규모별로 분류하고 종합부문(25개그룹)과 일반보험(7개그룹)을 평가해서 한 해 동안 농협손해보험 추진 최고의 사무소를 선정해 시상한다.

영광축협은 사무소 일반부문 그룹별 1위를 차지해 대상의 영광과 함께 위상을 알렸다.

이강은 영광축협 조합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평가에서 대상이라는 영예는 조합원과 고객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임직원의 단합된 모습과 노고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 축협을 믿고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영광축협이 축산인과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해남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 들어선다

해남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이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조성된다.

북평면 오산과 황산면 산소 여촌마을 등 2곳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한다.

은퇴자들은 오는 8월부터 공동체 마을에 2~3개월 단기 체류하면서 귀농귀촌 체험과 지역 봉사활동 등 농촌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군은 은퇴자의 단기체류형 주거공간·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퇴자 공동체마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18년

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유복지사업이다.

농산어촌의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이 거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다.

해남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명현관 군수는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귀농귀촌인 유치 등 인구 유입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은퇴자들이 생활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군-공무원연금공단 협약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